

‘나주 잡 페스티벌’ 역대 최대 70개사 참여한다



26일 한국에너지공대 일원서 현장 면접·취업컨설팅·설명회 에너지기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

올해 10회째를 맞은 '나주 잡(JOB)페스티벌'에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사가 참여한다. 잡페스티벌은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4'와 맞물려 다양한 에너지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진다.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일원에서 '제10회 나주잡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전력 그룹사를 포함해 에너지 분야 산·학·연 기관과 연관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에

너지밸리 중심지로 도약한 나주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일자리박람회다. 매년 현장 면접, 1대 1 취업컨설팅,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취업을 목표로 역량을 다져온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참여하는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4'와 연계 개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이 참가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 사무, 기술, 설계, 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가 어려운 기업은 온라인 채용관에서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숨은 인재 발굴에 나선다.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동산대학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링크(LINC)3.0사업단, 나주·광주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계 기관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알차게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는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구직자와 방문객을 반기는 이벤트도 다양하다. 행사장 일원에선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 타로, 직업적성 컨설팅(MBTI) 등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일자리박람회는 한국 에너지공대와 나주시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협력의 첫 단추를 끼우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일자리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재)담양군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행사

(재)담양군문화재단이 오는 26일 오후 2시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가 함께 토론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2014년 5월 창립한 재단은 폐산업시설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주도하며 담양의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담양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단은 창립 10주년을 기념을 위해 지난 6월 문화공연 '담뽕 풍류'를 개최해 군민이 예술로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지역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정재숙 전 국가유상장장이 기초 발제자로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재단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특별토론에서는 담양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농정을 포함한 가사문화, 담양 밥상을 통해 보는 음식문화의 가치, 담양 대나무 브랜드의 활용 등 담양이 가진 문화적 자원의 브랜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전문가의 발제 후 참가자 전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담양 문화예술의 발전 및 재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한국 장 담그기 문화'가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길 바라는 기원을 담아 식품명인의 장담그기 시연과 우리의 장을 시식할 수 있는 전차와 소망 버선 달기 등의 문화행사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 특량만강진만권 군민 관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장흥군은 다음달 1일부터 특량만강진만권 군민에게 관광문화시설 입장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할인이 적용되는 장흥군 시설은 정남진 전망대,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정남진 물과학관 등이다.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공동회장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는 4개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7월 구성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체다. 이번 입장료 감면은 지난해 정기회의 결사항에 따라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시설 이용 시점을 기준으로 장흥, 고흥, 보성,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장흥군과 함께 회원군인 고흥, 보성, 강진군에서도 관광문화시설 할인을 실시한다.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우주발사전망대 ▲고흥천문화과학관, 보성군은 ▲태백산맥문학관 ▲제암산자연휴양림 환경생질환경예방관리센터 ▲특량만 낚시공원, 강진군은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가우도 모노레일의 입장료를 20%~100% 범위에서 감면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4년에는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군민화합 합창페스티벌과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번 입장료 감면이 4개 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산 K-푸드 10개 업체 21개 품목 미국 수출길

쌀과자·김부각·냉동김밥 등 현대푸드시스템서 수출 선적식

장성군이 'K-푸드' 해외 수출의 선봉에 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소재 ㈜현대푸드시스템에서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박현숙 전남도의회 의원,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나문선 농업중앙회 장성군지부장, 수출업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총 2회에 걸쳐 10개 업체 21개 품목의 장성산 'K-푸드'가 미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선적식에서는 ▲올바름 쌀과자 ▲누르미 전통 누룽지 ▲가온 참들 오란다 ▲㈜우진식품 홍길동 김부각 ▲산들래 전통식혜 ▲장성군농협공동사업법인 365 '생' 쌀 ▲㈜현대푸드시스템 냉동김밥이 뉴욕 수출길에 올랐다. 이날말로 예정된 2차 선적식에선 추가적으로 ▲새벽밥 김치 ▲㈜북하특품사업단 장류 ▲㈜지원나물밥 3종을 엘에이(LA)에 수출한다. 장성군은 다음달 25일 뉴욕 'H마트'에서 열리는 전남도 직거래 행사에서 장성산 K-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26일 한복의 날 행사에서도



장성군이 지난 13일 ㈜현대푸드시스템에서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성 먹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국적인 쌀값 하락과 이상 기후로 농업 현장의 시름이 큰 상황에서 장성산 'K-푸드'의 미국 시장 진출 소식이 '희망의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성을 넘어 맛의 고장 전남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날까지 함께 발로 뛰고 땀 흘리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인구청년정책 솟품 영상 공모전

10월까지...가족 소중함 등 내용 화순군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에 긍정적 지원 제공을 위해 '2024 화순 인구청년정책 솟품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공모

작품의 주제는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함,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문제 인식 개선 등 인구·청년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면 된다. 공모 참여 시 제출 영상은 30~60초의 솟품 영상으로 1080*1920픽셀 이상이어야 하며, 출품 장르는 광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형식에 제

한은 없다.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 1편(100만원), 최우수 1편(60만원), 우수 2편(각 40만원), 장려 3편(각 20만원) 등 총 7편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함평군 2차 참가자 모집

함평군은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4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 2차 참가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함평 장기체류 관광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미션을 수행할 경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전남도·광주시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 중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여행하면서 여행 후기 작성, 체험 프로그램 참가, 만년의 함평 숲은 명소 발굴하기 등 여행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행을 하며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함평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여행작가, 여행블로거, 여행유튜버, 유명 예술인 등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